

K-CDMO부터 헬스케어까지... '첨단 기술력' 총집결

**제약 업계, '바이오 USA' 참가
생산능력·AI 전환 등 전략 공개
한미 캠퍼스 연계 청사진 제시
CDMO 인프라·바이오솔루션 출격
신약·AI 진단기기 앞세워 승부**

오는 16~19일(현지 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전 세계 제약·바이오 기업이 모여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2025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 열린다. 매년 6월 미국 바이오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세계 최대 규모를 갖춘 제약·바이오 박람회로 꼽힌다.

올해는 '더 월드 캠프 웨이트'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글로벌 바이오 산업과 혁신적인 기술을 조명하는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발맞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창사 이래 13년 연속으로 단독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초격차를 이뤄내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둔다. 올해 본격 가동을 시작한 5공장을 포함해 총 78만 4000L에 달하는 생산 능력, 항체·약물 접합체(ADC) 전용 시설,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전환 시스템 등을 소개한다.

특히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전시장 초입에 위치한 167㎡ 크기 부스에 LED 벽, 인터랙티브 터치 스크린 등 첨단 전시물을 설치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미래지향적인 브랜드 이미지까지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2025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내 '롯데바이오로직스' 부스 조감도. /롯데바이오로직스

또 전시장 입구에서 전면으로 보이는 스카이라이프, 중앙 행사장으로 입장하는 계단 등 전시장 주요 위치에는 단독 배너를 배치한다.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고객사와 접점을 넓혀 미국 등 글로벌 CDMO 시장에서 기업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도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참가해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미국 현지에 마련한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 내 항체·약물접합체(ADC) 생산시설 가동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7년 상업 생산 예정인 국내 송도 바이오 캠퍼스 1공장을 중심으로 한 청사진도 펼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와 송도 바이오 캠퍼스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고객사 요구사항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왔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말 새롭게 선보인 인자회사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전문기업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

와 함께 출격해 기업 영향력을 넓힌다.

셀트리온은 2002년 일찍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의약품 위탁생산(CMO) 사업을 전개해 왔고, 셀트리온 바이오솔루션스는 오는 2028년 국내에 최대 20만L 수준의 CDMO 인프라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약 후보물질 선별부터 세포주 및 공정 개발, 임상시험 계획, 허가 서류 작성, 상업 생산까지 의약품 개발 전체 주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바이오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바이오팜도 글로벌 무대에서 K제약·바이오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지난해 독일 의약품 CDMO 기업 I DT바이오로지카를 인수하며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CDMO 기술력과 전문 플랫폼을 선보이며 신규 고객을 유치한다.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상업화까지 자체 개발에 성공해, 미국에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를 직접 판매하고 있는 SK바이

오팜은 후속 파이프라인을 공개할 것으로 주목받는다.

동아쏘시오그룹 내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는 핵심 계열사 동아에스티, 에스티팜, 에스티젠바이오는 3사 공동 부스를 내놓는다.

전문의약품 전문기업 동아에스티는 신약개발을 비롯한 연구개발 역량을 홍보한다. 에스티팜은 올리고핵산치료제 원료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자사 주력 사업의 성장세를 이어간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물도사'를 생산하고 있는 에스티젠바이오도 그룹 내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진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전문회사 HLB그룹의 HLB셀과 HLB제약도 참가해 그룹 위상을 제고한다.

HLB셀은 최근 차세대 수술용 지혈제 '블리픽스' 확증 임상시험에서 성과를 냈다. HLB제약도 사업 구조를 개편하며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거뒀다. HLB제약은 전문의약품 위탁생산(CMO) 부문에서 생산 효율성을 개선하고, 헬스케어 부문에서 제품군을 확대하는 등 사업 전반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 인공지능 기업 메디웨이도 글로벌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건다. 메디웨이는 간편한 눈 검사만으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닥터는 CVD를 개발했다. 미국 식품의약품(FDA)의 '드 노보' 승인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공간생물학 기술력 입증

**국내 첫 PhenoCycler 분석기관 인증
면역 마커 60종 패널 도입 확대
IgG4·부비동염 등 정밀치료 기여**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공간생물학(spatial biology)이라는 첨단 기술로 국내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공간생물학 기술은 조직 내 세포의 위치와 상호작용을 시각적으로 분석하여 질병을 더욱 정밀하게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 기술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2023년부터 공간생물학 기술을 도입해 연구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왔으며, 2024년에는 미국의 공간생물학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인 아코야 바이오사이언스(AKOYA Biosciences)로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두 번째,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기업의 제품인 'PhenoCycler-Fusion' 분석 수행기관으로 공식인증(Qualified CRO Service Provider)을 획득, 국제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최근 국제학술지 '분자 과학의 국제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에 게재된 연구에서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IgG4 관련 질환(IgG4-Related Disease)의 면역체 크포인트 발현 양상을 공간생물학 기술로 분석했다. 특히, PD-L1이라는 면역체 크포인트가 치료에 저항을 보이는 환자군에서 현저히 증가한 것을 발견해, 개인 맞춤형 치료의 길을 열었다.

또한 분당제생병원 안상현 교수팀의

만성 부비동염 연구에도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공간생물학 기술이 적용됐다. 이 연구는 염증 단백질 S100A9의 역할을 밝혀내 질병의 중증도를 예측할 수 있는 획기적 성과를 이루었고,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최근 면역종양학 분야에서 60개 이상의 면역 마커 패널을 도입하여 분석 능력을 크게 확장하며 관련 계약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브랜드 모델 안은진이 '마데카 프라임 맥스'를 소개하고 있다. /동국제약

동국제약

'마데카 프라임 맥스' 최대 57% 할인 혜택

동국제약이 오는 15일까지 마데카 프라임 공식몰에서 신제품 뷰티 디바이스 '마데카 프라임 맥스'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마데카 프라임'은 동국제약의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이며, 이번 신제품은 2023년 출시된 브랜드 대표 제품 마데카 프라임을 재단장한 모델이다. 크리스탈 브라이팅, 다이내믹 흡수, 하이 퍼 탄력 세 가지 기능을 갖췄다.

특히 세 가지 기능을 각각 단 3분(180초) 만에 구현하는 고도화된 기술력이 적용됐다. 또한 가지 기능에 두 가지 이상의 기술들을 탑재해 피부 관리 효과를 극대화했다. 스마트 피부 인식 센서, 음성안내, LCD 디스플레이, 배터리 잔량 표시 등은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준다. 사전 예약 판매 기간 중 마데카 프라임 공식몰에서 '마데카 프라임 맥스'를 구매할 경우 최대 57% 할인과 함께 다양한 구매 혜택이 제공된다. /이청하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日 니프로와 파트너십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확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일본 니프로코 퍼레이션과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등 다양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상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업체와 협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본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제품 개발과 생산·공급을, 니프로는 판매를 담당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김경아 사장은

"이번 파트너십 계약은 일본 시장 진출의 중요한 기점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 잠재력이 큰 일본에서 전문 판매사와 긴밀한 협업하여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을 통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2년 설립 이후 블록버스터 바이오시밀러 제품 총 11종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으며, 지난해 창사 최대인 1조 5377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세경 기자

셀트리온 '코이볼마', EU 품목허가 획득

스테키마에 적응증 추가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맵) 바이오시밀러 '코이볼마'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코이볼마는 셀트리온의 기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가 보유한 판상형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등의 적응증에 류양성 대장염을 추가해 승인을 획득했다.

셀트리온은 서로 다른 적응증을 보유한 2종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스텔라라가 유럽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코이볼마 출시로 보다 넓은 적응증을 포괄할 수 있어 우스테키누맵 시장 내 점유율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키마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각각 유럽과 미국에서 출시됐다. 특히 셀트리온은 스텔라라를 내놓으며 자가면역질환 분야에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이청하 기자